online © ML Comm
心性硏究 30 : (1), 2015, 80~92

『융과 아프리카』 서평

김 원 중*

2005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 책은 꼭 80년 전인 1925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있었던 소위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라는 융의 아프리카 여행을 재구성한 것이다. 단순한 재구성이 아니라 마치 함께 여행하면서 다큐멘터리 필름을 찍은 것으로 착각할 정도의 완벽한 복원이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 왕고니호 선상 여행은 즐겁고 편안했으며 다른 승객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다. 저녁 식사 후 흡연실에서 또는 한낮의 태양이 차가운 지중해의 산들바람을 누그러뜨리는 오후에 갑판에서, 황제폐하 정부에 관한 열띤 토론, 큰 사냥에 관한 긴 이야기, 식민지 관리들의 연금에 관한 자유로운 이야기, 증권시장 거품에 관한 생각, 그리고 케냐 정착민 정책에 대한 전망 등이 계속 이어졌다. 내향적인 융은 매일 행하는 아침 식사, 차, 점심, 차, 그리고 저녁 식사 의례에서 여행 동료들의 상호 교류를 바라보는 것을 즐겼다. 영국인 승객들은 두 사람씩 조를 만들어 손과 발을 한데 묶고, 각 조가 머리와 몸통을 사용하여 서로 원 밖으로 밀어내는 이른바 닭싸움 같은 단순한 게임에 몰두하였다(Bodry-Sanders, 1991, p.113)(p.76). -

- 융 일행은 몸바사에서 이틀을 보낸 뒤 나이로비로 향하는 야간열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그때가 11월 13일, 금요일이었다. 그 기차는 일반적으로 오후 5시에 530km의 여행을 출발하여 22시간 30분 후에 나이로비에 도착하였다. …… 융은 '저녁 무렵 내륙의 나이로비로 향하는 협궤 열차를 타고 열대의 밤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들이 출발하였다.'라고 적었다. 한편으로는 융이 기차의 경로에 대해 사실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는 '내륙'과 '밤'을 동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일시하고 있다. 그는 지금 스탠리의 '가장 어두운 아프리카'로 들어가고 있다. 융은 부분적으로 이 '어두움'을 경험하고 그것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기 위해 아프리카에 갔다. 머지않아 융은 아프리카의 풍경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밤과 낮, 어둠과 빛, 일몰과 일출 등의 대극을 탐색할 것이다 (pp.116-117). -

그러나 이 책의 진정한 놀라움은 융 여정의 완벽한 복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행기 중간 중간에 끼어있는 '막간(interlude)'에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어떤 지역을 지날 때의 융의 경험이 그의 사상 중 어떤 부분과 연관이 있는지, 즉 그 때 융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것이 그의 저작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그의 사상과 이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하고 있다. 마치 융과 오랜 시간 인터뷰를 하고 쓴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저자는 융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막간'은 저자의 엄청난 공력의 결과물일 테다. 아마도 그는 융의 모든 저작물을 꼼꼼하게 찾아 읽은 것은 물론 그의 여행 경로를 그대로 따라 가봤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다.

나는 책을 읽는 중에 '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엄청난 작업을 왜, 어떻게 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점차 커져만 갔다. 역서의 책날개에는 저자 Blake W. Burleson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베일러 대학교 예술과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 대학교 종교학과 조교수이며, 학사 과정의 부학장이다. 세계 종교와 아프리카 연구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는 1978년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해 왔고, 1966~2003년 동안 베일러 대학교의 아프리카 연구계획을 이끌었다. -

한 마디로 저자는 종교 학자이자 아프리카 전문가라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전혀 다른 분야 사람인 융의 아프리카 여행에 그토록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졌다. 이 궁금증은 역서 26쪽의 이런 구절 풀렸다. '이즈음(1994~1995년) 나는 융 학파 분석가 해

이 윌머 박사의 피분석자로서 융 심리학 연구에 관한 학문적이고 개인적인 관심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p.26) 그의 융에 관한 관심은 그가 융 학파의 분석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전혀 융 학파 사람(Jungian)이 아니다. 그런 까닭에 '저자의 말'에서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해 그의 분석가인 해리 윌머를 비롯해 존 비비, 소누 삼다사니 등 여러 명의 융 학파 연구 분야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나의 다음 궁금증은 저자는 80년 전의 일을 어떻게 그리도 소상히 복원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이 의문은 프롤로그와 참고문헌을 통해 해결됐다. 프롤로그에는 저자가 이 책을 위해 쏟았던 수고의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맨 뒤의 참고 문헌 란은 융의 저작물은 물론 융과 원정대 일행들의 인터뷰 자료, 신문기사, 오래된 관공서 문서, 그리고 내가 그 수를 세다가 포기한 수많은 2차 자료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한 마디로 저자는 이 책을 쓰기 위해 약 10년 간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프롤로그 중 몇 구절을 읽어보자.

– 아프리카에서의 융에 관한 나의 연구는 1994~1995년 여름 안식휴가 때 케냐 서부 부쿠수 족의 점복 체계를 연구하던 중 시작되었다. 나는 융이 엘곤 산 기슭에서 초가지붕을 얹은 진흙집에 살고 있는 이 아프리카 종족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궁금해졌다. 집으로 돌아와 융이 아프리카 여행에 관해 쓴 글을 다시 읽고 나서 나는 융의 사파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기 시작했다. …… 2003년 7월의 나의 케냐 여행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 첫째로, 케냐 국가기록보관소에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한 연구를 끝마치고 싶었다. 그리고 둘째로, 엘곤 산에 있는 융의 야영지를 찾고 그곳에서 사바부트 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 나는 첫 번째 주를 케냐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먼지 끼고 누렇게 변한 식민지 지방행정관들의 서류를 읽고, 엘곤 산 지역을 손으로 그린 지도를 연구하며, 융이 케냐에 도착한 1925년 11월부터의 '동아프리카 스탠다드지(East African Standard)'를 매 페이지마다 스캔하면서 보냈다. …… 기록보관소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나는 서부 케냐에 있는 키수무로 날아갔다. ……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작은 푸조로 고도 2,133m까지 험한 길을 여행하였다. …… 융은 그들이 키미리리에서 약 12km 정도 산 쪽으로 올라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있었을 법한 장소를 대강 가늠하고 있었다. …… 절벽 끝에 도착하자 갑자기 우리 앞에 지평선이 열렸다. 나는 바위로 된 단층애 위에 서서 재빠르게 융이 MDR에 묘사해 놓은 야영지 풍경을 모두 찾아보았다. 우리는 밑에서 폭포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약 270m 떨어진 곳에서 키북 계류로 갈라진 완만한 경사면에 평평한 지대가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융이 이곳에 사파리 텐트를 쳤을 것 같았다. 계류는 융이 적어 놓은 대로 작은 계곡이 '진한 녹색 정글 띠'를 이루어 구불거리며 흐르고 있었다. 정남쪽 멀리 안개 너머로 12km 떨어진 키미리리 시가 햇빛에 반사되어 보였다. 골짜기는 아직도 동서쪽이 포도 넝쿨과 나무가 울창한 가파른 단층애로 막혀 있었다. 나는 키보이 신부에게 "여기가 그곳 같아요!"라고 소리쳤다.(pp.25-36) -

저자는 2003년 직접 케냐로 날아가 융이 캠프를 설치했던 장소까지 찾아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융의 원정을 기억하거나 간접 정보라도 줄 만한 사람들은 모두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듯 저자는 이 책에 놀랄만한 열정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 책의 구성은 맨 앞에 프롤로그와 맨 뒤에 에필로그를 두고, 본문으로 융의 아프리카 여정을 시간 순으로 따라가는 총 8 장으로 이루어졌다. 제 1장은 융의 아프리카 원정대가 구상되고 준비되는 과정, 즉 출발 이전의 이야기이다. 이 단계부터 갖은 우여곡절이 있어, 결국 융 말고는 애초의 멤버들이 모두 바뀌게 된다. 제 2장은 융이 1925년 10월 15일 영국 사우샘프턴에서 왕고니(Wangoni) 호에 승선하는 시점부터 그해 11월 12일 케냐 몸바사 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선상 여행 이야기이다. 제 3장은 11월 13일 몸바사에서 야간 기차를 타고 출발하여 그 다음 날 정오에 나이로비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다. 제 4장은 나이로비에 도착한 11월 14일부터 원정 목적지로 출발한 11월 24일까지의 약 열흘간의 이야기이다. 이때 원정대는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고 융은 루스 베일리를 만나 교제한다. 제 5장은 11월 24일 오후 4시 나이로비에서 기차로 출발한 시점부터 카카메가를 거쳐 12월 3일 키미리리에 도착할 때까지의 이야기이다. 제 6장은 12월 4일 카라반이 출발하여 엘곤 산 키북 계류 근처에 야영지를 구축하고 엘고니 족을 만났던 약 3주간의 기록이다. 이 동안 융은 원정대의 본래 목적인 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책 분량도 약 90쪽으로 가장 길다. 제 7장은 3주간의 야영을 마치고 12월 25일 출발한 후 부남베일, 부불로, 음베일, 진자, 나마사갈리, 마신디, 수단의 니뮬을 거쳐 레자프에 도착해 배를 타고 2월 1일 몽갈라에 정박할 때까지의 여정을 다룬다. 제 8장은 융의 증기선이 2월 10일 하루툼에 도착한 후 와디 할파, 이집트의 아부심벨, 아스완, 룩소르, 카이로, 포트사이드를 거쳐 3월 13일 제노바, 3월 14일 취리히로 돌아올 때까지의 마지막 여정의 기록이다. 에필로그에는 탐험대의 대상이었던 엘고니 족, 그리고 탐험대원 4인, 즉 조지 벡위드, H. G. 베이네스, 루스 베일리, 융에 관하여 그들의 탐험 이후의 삶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앞에서 프롤로그를 통해 저자의 신상과 이 책의 집필 동기 및 과정에 관해 살펴보았으니, 이제부터는 본문을 통해 융에 관하여, 즉 융이 이 아프리카 여행을 통해 성취한 바에 관해 알아보자. 제 1장에서 저자는 융의 아프리카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융과 그의 동료들은 그 세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원시적인' 세계를 찾아 아프리카로 갔다. …… 융에게 '원시적인'이란 도처에 존재하는 무의식에서 생겨난 인간(그리고 동물) 정신의 미분화된 층을 가리킨다. '문명화된' 인간이 '종족'의 집단의식을 떠나면, 그는 분화된 자아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보다 충분히 개성을 의식화한다. 그러나 융은 대가를 치루고 이 단계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즉, 이런 진화 과정에서 '문명화된' 인간은 이 '원시적인' 층을 버리면서 영혼을 잃는다는 것이다. 융은 서구인에게 점점 많아지는 여행을 위한 여행 습관을 이런 결핍의 징후로 보았다. 융의 생애에서 가장 길었던 아프리카 여행은 그 자신의 '원시성'을 회복하려는 강렬하고 개인적인 탐사 여행이었다.

"1층은 무의식의 첫 번째 층을 나타낸다. 내가 더 깊이 내려갈수록 장면은 더 낯설어지고 어두워졌다. 나는 동굴 속에서 원시 문화의 잔해, 즉 내 안에 있는 원시인 – 의식으로 도달할 수도, 밝힐 수도 없는 세계 – 을 발견했다. 선사시대 동굴에 일반적으로 인간이 그것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동물이 거주했었던 것처럼 인간의 원시 정신은 동물 영혼의 삶과 맞닿아 있다."(MDR, p.160) (pp.54-55) –

아프리카에 대한 융의 이런 기대와 포부는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를 통해 과연 얼마나 달성되었을까? 저자는 역시 제 1장에서 이렇게 평하고 있다.

– 1925~1926년의 융의 사파리는 그의 전형적인 삶과 개혁적인 생각을 만든 주요한 외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한다. 융의 주요 저작 대부분은, 융이 살아 있는 인간이 거주했던 진짜 동굴에 내려가서 그들의 석기시대 연장을 만져보았던 아프리카 여행을 따랐다. 그 동굴에서 그는 자신을, 그가 말했듯이 '원시적인' 것에 정신적으로 감염되게 내버려 두었다. 융의 아프리카와의 본능적인 동일시는 그의 생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던 풍부한 창조력의 샘물을 풀어놓았다. 아프리카는 그의 많은 주요 개념을 만들어냈거나 아니면 그것을 증류기에서 숙성시켰다. 융이 그의 존재 이유, 그 인생의 '신화', 에드워드 에딩거가 인간성 자체를 위한 '신기원'이라고 묘사했던 사건을 발견했던 곳이 아프리카였다. "융이 했던 자신만의 신화의 발견은 우리의 새로운 집단적인 신화의 첫 번째 출현이라고 증명될 것이다."(S 1, p.12)(p.56) –

저자는 책의 앞부분에서 이처럼 융의 아프리카 여행은 그의 '풍부한 창조력의 샘물을 풀어놓았으며', 그의 이론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이 넘어갈수록 초반의 평가와는 다른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타나 독자를 혼란스럽게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 융은 "엘곤 산 사바나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백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CL 2, p. 418)라고 기록하였다. 그 이전의 수많은 탐험가들과 같이 융은 처녀지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사람이 되려는 유럽인들의 갈망을 반영하는 주장을 하였다. …… 일찍이 콘월리스 해리스는 어떤 지역에 첫 번째 백인이 되려는 하느님 같은 무엇이 있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창조를 주재하는 것 같았다고 말하였다(McLynn, 1992, p.342), 융은 따듯한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내 엘고니'라고 했었을 것이다. 한편 융의 주장은 순수한 과장법이다. 왜냐하면 엘고니 족 감독과 카라반의 엘고니 족 짐꾼들은 지속적으로 유럽인들과 거래를 해왔기 때문이다. 엘고니 족은 1880년대부터 유럽인 원정대와 사파리의 방문을 받았다. 현지인은 모두 키미리리에 있는 유럽인을 위한 휴식용 캠

프를 알았고, 그들은 이것은 사파리 캠프라고 불렀다.(Kiborom, 2003)(p.246) -

- 융은 심리학적인 실험을 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왔다.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의 목표와 방법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설명은 '꿈이 무엇을 드러내는가: 과학자들이 원주민의 마음을 연구하기 위해 케냐에 오다: 부기슈 족 연구: 유럽인과 아프리카 사이의 심리학적인 연결: 인간 안에 있는 원시적인 잔존물'이라는 제목으로 융과 베이네스가 '동아프리카 스탠다드지'와 한 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EAS, 1925.11.19. p.5). …… 융은 그가 '원주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이해했었지만, 팔라버(palaver) 접근법-유럽인 탐험가들과 아프리카 주민 대표들의 반 공식적인 회담- 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특권을 박탈당한 엘고니 족에게 경호원을 거느리고 있는 융은 식민지배자의 대표로 보였다. 아마도 그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엘고니 족을 영국 왕에게 복종하는 족속으로 만들기 위해 전통 방식을 배우려고 영국이 임명한 자였을지도 몰랐다. …… 이렇게 융의 결과는 예상대로 미약하였다. 그는 엘곤에 체류하고 있던 기간 동안 '원주민의 꿈'을 오직 하나만 들었을 것이다. 그는 회상하였다. "나는 부족민들에게 꿈을 얻으려고 몹시 초조해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가져다주는 꿈 하나마다 담배 두 묶음, 소금 등의 높은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정직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러 매일 왔지만 아무도 꿈을 가져오지 않았다."(S 1, p.20) …… 6년 뒤에 민속지적인 작업에 관한 글을 쓰면서 융은 '나는 멀리 그리고 넓게 조사하고 물어보았다. 그리고 수주가 지나도 아무 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CW 10, p.144)라고 말하였다. 융은 나중에 그의 미약한 연구 결과물들을 이성적인 대화에 오랫동안 참여할 만큼 충분히 의식성을 유지할 수 없었던 '원시적인' 엘고니 족의 책임이라고 결론지었다. ……

융이 칩티이크에게 그의 꿈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그가 직접적으로 식민 당국과 관련되는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그는 기억하였다. "우리의 엘고니 족 짐꾼들은 진지하게 그들은 결코 꿈을 꾸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오로지 주의(呪醫)만 꾼다고 하였다. 내가 주의에게 물었을 때, 그는 영국인들이 이 땅에 들어온 뒤로 꿈을 중단했다고 선언하였다. …… 그는 하나님이 이제는 꿈에서 영국인들에게 말하지 엘고니 족의 주의에게는 말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권력을 가진 자가 영국인이기 때문이다."(CW

10, p.128) 융은 여러 군데에 칩티이크와 나눈 대화에 관한 글을 썼다. 그는 와쿤티이트의 말을 순진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다. '눈에 눈물을 글썽이던' 칩티이크가 융에게 정직했을까? 아들이 식민 당국의 급료를 받는 피고용인인 칩티이크는 확실히 영국 전제군주의 충직한 하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 그 보답으로 그들은 급료나 선물(예를 들면, 흰말)의 형태로 보상을 받았다. 지도자 아들의 조언자로 있는 칩티이크가 자신이 예언적인 꿈을 꾸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반역일 것이었다. 2003년에 97세가 된 늙은 엘고니 족 예언자인 사무엘 나이바이 키무쿵과의 대화에서, 나는 그에게 칩티이크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융에게 솔직했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 예언자는 "아니요, 그것은 위장이었지요."라고 대답하였다(Kimukung, 2003.10.3.)(pp.259-267). -

- 융은 '이브라힘이 엄청난 몸짓과 말을 쏟아내 그 남자를 최면에 들게 하여 달리기 선수 기분으로 가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CW 18, p.1289), '내가 한 단순한 명령만으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였다.'(CW 18, p.1289) 라는 말을 하면서 그가 칼렌진 족 우편배달부를 동기화시키지 못한 것을 설명하였다. 융은 그가 소통하는 데 실패했던 것은 그 심부름꾼의 '원시적인' 층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원시인 심리와 문명인 심리 사이에 주요한 차이를 볼 수 있다. 우리는 축적된 힘을 방출하는 데 한 단어면 충분하다. 그러나 원시인들에게는 그 사람을 행동할 수 있는 기분이 되게 하려면 계산된 다양한 수식과 함께 정교한 팬터마임이 필요하다.'(CW 18, p.1289) 1938년 융은 옥스퍼드에서 "우리가 '의지' 또는 '의지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원시인들에게는 없는 현상이다."(CGJS, p.102)라는 것을 예시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하였다. 융은 아프리카인의 자아는 실질적으로 '자율성이 없어서', '의지와 지향적인 의도'(MDR, p.242)가 결여되었다고 믿었다. 원시인은 이성이 아니라 정동에 의해 움직여져야 했다. 융이 마라톤을 세 번 완주할 거리를 이틀 반 만에 들려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올림픽 개막식의 화려한 의식을 필요로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간과했던 것은 차치하더라고 훨씬 더 간명한 설명이 있다. 그것은 이 남자가 달릴 거리를 듣고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척했던 사례였을 것 같다. 사파리 감독인 이브라힘이 스와힐리어로 명령하여 융에게 권위를 가지고 '이교도 녀석'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 시연하였다. 이 이야기는 원시인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사람과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아프리카인은 최면이 아니라 '채찍 소리와 욕지거리 사례'로 다스려졌다. …… 이 심부름꾼은 융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을 것이고 백치도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그가 유일하게 가능했던 시민 불복종의 형태 – 무지를 가장하는 – 를 행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브라힘은 융에게 연기를 하고 있는 열등한 자에게 어떻게 명령을 내리는가를 보여 주었다. 정중하게 요청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명령을 했던 것이다!(pp.254-255) -

- 융의 엘곤 산 귀신 이야기는 재미있기는 하지만 엘고니 족 전통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융의 저서 이외에는 엘고니 족이 산 자체를 죽은 자들의 마지막 거주지라고 생각해 왔다는 증거가 없다. 키쿠유 족에게 케냐 산과는 달리, 엘곤은 엘고니 족에게 두려움과 외경의 장소로 여겨지지 않았다(Synge, 1937, p.79). 이 산이 항상 그들의 안식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산에 대단한 존경을 바치기는 하였지만, 그것에 특별한 영적인 의미는 없었다(Kiborom, 2003). 융이 원주민들의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한 것은 그 지방의 엘고니 족이라기보다는 그의 스와힐리인 조수와 난디 족 경비병의 믿음을 반영한다(p. 285). -

이런 구절들은 꿈을 통해 원시인의 마음을 연구하려고 아프리카에 갔던 융 원정대의 성과가 매우 '미약'하였음을 보여준다. 아프리카인 중 오직 한 사람에게서만 꿈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융은 아프리카인과 그들의 관습, 전통, 종교, 문화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게다가 그들에게 여러 차례 속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독자로서는 융의 아프리카에서의 발견과 통찰이 과연 '참(true)'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과연 융의 아프리카 경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맞는 지까지 의심스러워진다. 아닌 게 아니라 저자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 나는 엘곤에서의 나머지 날은 캡삭워니의 사바부트 족 원로들과 면담을 하면서 보냈다. …… 나는 연구 시작부터 융이 토착민으로부터 배우려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지만 기껏해야 피상적으로 사바부트 족을 이해했고, 그들을 그의

새로운 이론의 틀에 맞추며, 제국주의적인 언어로 표현된 이해를 얻었을 것이라고 느꼈었다. 나는 그의 관찰 중 일부는 부정확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은 내가 인터뷰한 원로에 의해 확인되었다. 나는 나에게 사바부트 족의 언어, 스와힐리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한 번역가들이 있다는 점에서, 내가 융보다 분명히 유리하다는 것을 밝혀야겠다(p.42). …… 결국 융은 팔라버에서 영혼의 영역에 관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였다(p.294). –

독자로서는 저자의 융과 융의 아프리카 연구를 보는 관점 혹은 태도가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분명히 저자는 책의 앞부분에서는, 융을 '20세기 가장 중요한 개인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영향력은 그가 창시한 분석심리학의 한정된 영역을 넘어 다양한 학문 분야에 널리 퍼져서 지금은 '포스트모던' 세계관의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우뚝 서 있으며, 융의 에라노스 집담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촉매로서 융의 공헌을 확증한다'(pp.57-58)고 칭송하고, 아프리카 원정에 대해서도 그곳이 바로 융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장소이고 많은 주요 개념을 만들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융의 원정대에 대해 '기껏해야 피상적으로 아프리카인을 이해했고, 그의 새로운 이론의 틀에 맞추면서 제국주의적인 언어로 표현된 이해를 얻었으며, 관찰 중 일부는 부정확할 것'이고, '결국 융은 아프리카에서 영혼의 영역에 관해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매우 다른 평가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추측을 해 본다. '혹시 저자는 집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융을 매우 존경했으나 조사를 하면서 그의 아프리카 여정을 꼼꼼히 추적하다 보니 자신의 의도나 기대와는 달리 융 연구의 한계와 오류를 발견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자 역시 내면적 혼란을 겪은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한 책에서 같은 대상에 대해 어찌 이리도 극명하게 상반된 시각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보니 저자는 책의 말미에 가서는 다음과 같은 어정쩡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 융이 인종중심주의에 고착되어 종종 아프리카인들은 단순하고 논리적이

지 못하며, '미개한' 등으로 고정관념을 갖는 실수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는 많은 유럽인들이 유럽의 복잡성, 합리주의 그리고 '문명' 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아프리카로 밀려들었다고 말한 것은 옳았다(p.364). -

이 책에 의하면 융의 아프리카 원정대는 연구 준비는 부실했고 연구 방법은 어설펐으며 연구 결과는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융이 아프리카 탐험을 통해 깨닫고 확인했다고 하는 그의 이론의 바탕은 실은 견강부회라 해야 하지 않을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여행 전부터 갖고 있던 자신의 선입견에 꿰어 맞추었으니 말이다.

아프리카 원정을 통한 융의 학문적 성취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한 가지의 분명한 성취는 있었다. 바로 28세의 영국 간호사 루스 베일리와의 만남이다.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는 배 왕고니호에 우연히 함께 승선했던 그녀는 여러 가지 곡절 끝에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의 네 번째 동료로 합류하였으며, 그 이후 융이 사망하는 순간까지 옆에 함께 함으로써 많은 융의 여자들(Jungfrauen) 중 마지막 여자가 되었다. 사실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는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부기슈 족이 아닌 엘고니 족을 만났는데 – 렇다면 원정대의 이름도 '엘고니 심리학 원정대'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목표를 수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녀 때문이었다.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융이 연구 대상을 변경한 것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함께 할 수 없었던 그녀를 팀에 합류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책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

- 프랜시스 다니엘 히스롭과 융 사파리와의 우연한 만남은 엘도레트에서 48km 남쪽에 있는 니안자 중의 난디 지역 정부의 위수지인 켑사벳에서 일어났다. …… 융과의 만남에 관한 히스롭의 회상으로 두 가지가 드러난다. 첫 번째, 이 팀은 부기슈 족으로 가는 우간다 임무를 버리려는 준비가 되어 있어 보였다. 그들은 이제 루스가 원정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터보에서 더 가까운 인종 그룹에 자리 잡으려 하고 있었다. 두 번째, 이 팀은 민속지학적 면담을 수행하기에는 한심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융의 간단한 스와힐리어를 제하고는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고, 그것마저도 그들이 선택한 인종 그룹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없었다(p.203). -

1875년 생으로 당시 꼭 50세였던 융이 타지에서 우연히 만난 28세의 처자를 평생 동료(?)로 만든 것은 그의 이 방면의 특출한 능력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 하겠다. 책에서는 이 과정 역시 마치 옆에서 지켜본 듯이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독자는 충분히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독 후 책을 내려놓으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 섞인 궁금함이 남았다. 그것은 바로 이름도 모르는 어떤 독일인 과학자의 생사 여부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1926년 1월 24일 레자프로 걸어가던 중 기운과 보급품이 소진된 융 일행은 중간에 우연히 트럭 한 대를 만났다. 그 트럭은 오지에서 사파리를 하고 있던 독일 과학자를 구하기 위해 레자프를 출발해 가는 중이었다. 지친 융은 트럭 운전수에게 '자신이 바로 그 독일인'이라고 거짓으로 속인 후 그 차를 타고 레자프까지 106km를 갔던 것이다. 책에 의하면 버려진 독일인 과학자에게 그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p.352) 이걸 어떻게 보아야 하나? 이것도 융의 영민함인가? 그러나 나는 아직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이라면 역자의 놀라운 성실함과 꼼꼼함을 들 수 있겠다. 저자 못지않게 역자 역시도 번역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장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미주가 깨알 같은 글씨로 붙어있다. 제 6장은 그 수가 무려 83개에 이른다. 그 뿐 만인가? 책의 모두에는 '역자의 말'과 '저자의 말'에 이어 '용어에 대한 정보', '약어', '아프리카 지도'가 있으며, 책 뒤에는 토착집단들 명칭, 원주민 용어, 인명, 융 학파 용어, 지리적 위치, 스와힐리어까지 꼼꼼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맨 뒤 부록 1에는 부기슈 심리학 원정대의 여정이 날짜 별로, 부록 2에는 융의 생애와 동아프리카 식민지 연표가 년도 별로 정리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아무나 번역에 달려들 수 있는 책이 아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번역이 너무 직역에 가까워 어떤 문장은 원저의 영문을 가늠해 보아야 의미를 헤아릴 수 있다는 점이겠으나, 이것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곧 익숙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역자는 서울대학교 의대 출신 정신과 전문의이자 한국 융 연구원을 수료한 융 학파 전문가이다. 따라서 융에 관해서는 저자보다도 한 수 위일 것이며, 이런 역자의 저적 배경과 특장은 저서 곳곳에 풍부하게 실려 있는 융 이론의 설명 부분에서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나는 이 책을 융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한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이미 밝힌 듯 하니 다시 중언부언은 않겠다.

참고문헌

Blake W. Burleson, 이도희 옮김(2014) : ≪융과 아프리카≫, 학지사, 서울.
Blake W. Burleson(2005) : *Jung in Africa*, Continuum, New York.